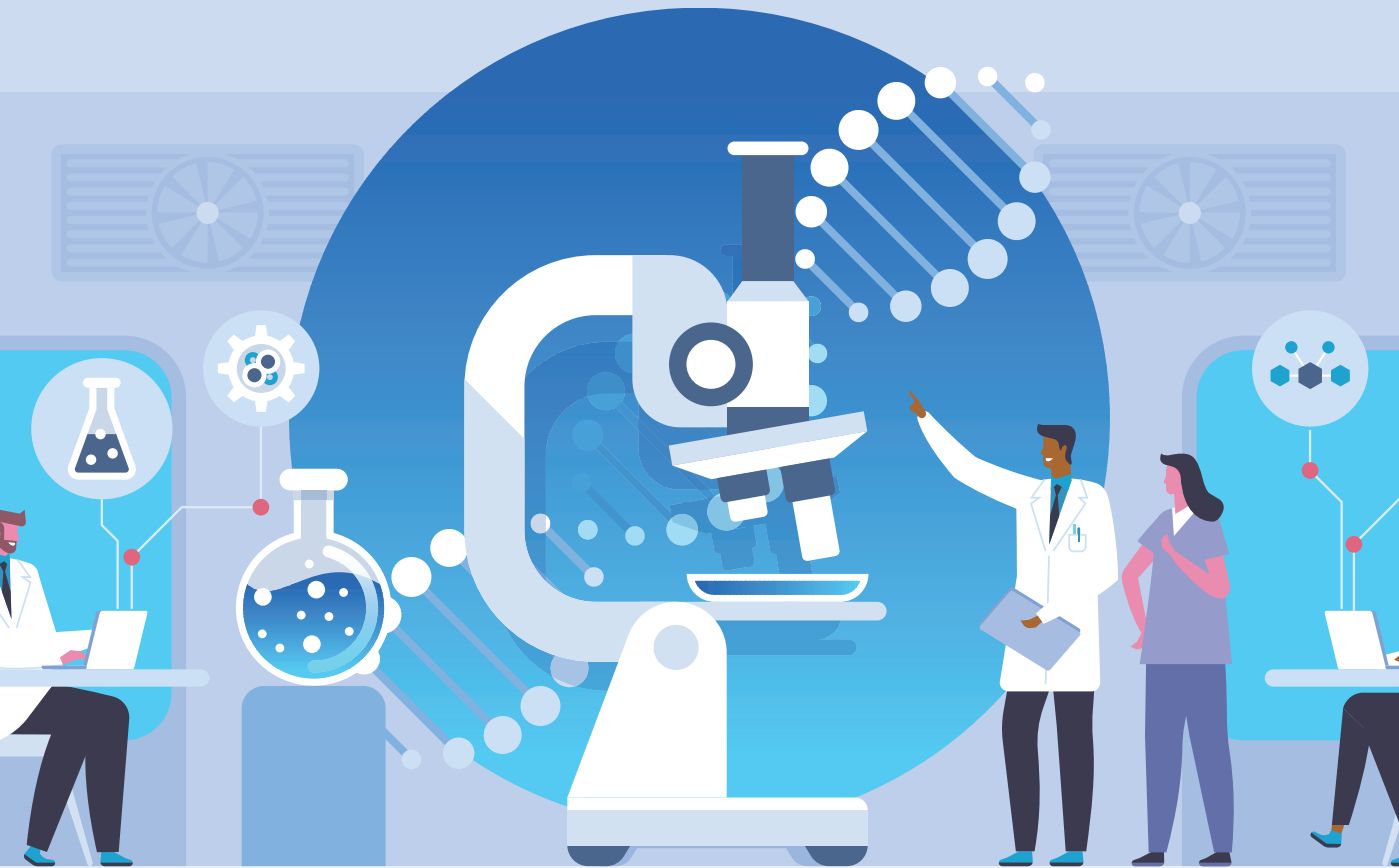


# Deloitte Insights

June 2025



##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 6대 테크 트렌드

Deloitte Insights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 들어가며

본 보고서는 매년 발간되는 딜로이트의 「테크 트렌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 내 첨단기술 트렌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테크 트렌드 보고서에서 소개된 6가지 트렌드를 동 산업 관점에서 각각 평가한다. 또한 제약, 생물의학, 의료 기술, 관련 산업 전반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주요 활용 방안과 실사용 사례를 소개한다.

본 보고서가 참고한 딜로이트 「테크 트렌드」 보고서는 매년 떠오르는 신기술과 성숙기에 접어든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하며, 이러한 기술이 비즈니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례 보고서이다. 올해로 16번째 발행된 금번 보고서는 반짝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사회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첨단기술 트렌드를 조명한다. 2025년 트렌드의 주제는 인공지능(AI)의 포편화이다.



# 2025년 테크 트렌드 개요

딜로이트의 2025년 테크 트렌드는 미래를 좌우하는 6가지 요인, 즉 '거시적 힘'(macro force)을 제시한다. 이는 '성장을 견인하는 힘'(Elevating force)과 '운영을 안정시키는 힘'(Grounding force) 두 가지로 분류된다. 6가지 거시적 힘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                                              |                                           |                                   |                                       |
|----------------------------------------------|-------------------------------------------|-----------------------------------|---------------------------------------|
| 성장을 견인하는 힘은<br>기업의 혁신과 성장 뒷받침                | 정보처리<br>거대 언어 모델에서<br>소형 언어 모델로           | 연산능력<br>하드웨어 시대 도래                | 상호작용<br>공간 컴퓨팅의 부상                    |
| 운영을 안정시키는 힘은 기업이<br>성장하는 동안 원활하게<br>운영되도록 지원 | 기술과 비즈니스<br>확장된 IT: AI가 기술의<br>범위와 역할을 확대 | 사이버 보안과 신뢰<br>양자 시대의 암호화<br>문제 해결 | 핵심 시스템 현대화<br>AI 중심으로 시스템의<br>근본적인 변화 |

미래에는 AI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I는 앞서 소개한 6가지 '거시적 힘'의 많은 부분과 맞닿아 있다. AI는 우리 일상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 것이다. 마치 산소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존재가 된 나머지, 우리는 AI를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성장을 견인하는 힘 Elevating forces

| 정보처리<br>Information                                                                                                                                                      | 연산능력<br>Computation                                                                                               | 상호작용<br>Interaction                                                                                                                                                     |
|--------------------------------------------------------------------------------------------------------------------------------------------------------------------------|-------------------------------------------------------------------------------------------------------------------|-------------------------------------------------------------------------------------------------------------------------------------------------------------------------|
| <p><b>트렌드 1.</b><br/><b>거대 언어 모델에서 소형 언어 모델로</b></p> <p>AI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극대화된 에이전트 AI로 발전할 것이며, AI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조직과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p> | <p><b>트렌드 2.</b><br/><b>하드웨어 시대 도래</b></p> <p>AI의 발전과 확산으로 하드웨어와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로봇 상용화의 시기를 한층 더 앞당길 것이다.</p> | <p><b>트렌드 3.</b><br/><b>공간 컴퓨팅의 부상</b></p> <p>현재 공간 컴퓨팅 기술은 디지털 트윈 등의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관리와 통합의 문제가 해결되고 AI 에이전트와 결합될 경우, 공간 컴퓨팅이 일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진화할 전망이다.</p> |

운행을 안정시키는 힘 Grounding forces

| 기술과 비즈니스<br>Business of technology                                                                                                               | 사이버 보안과 신뢰<br>Cyber & trust                                                                                                                                                | 핵심 시스템 현대화<br>Core modernization                                                                                                                                             |
|--------------------------------------------------------------------------------------------------------------------------------------------------|----------------------------------------------------------------------------------------------------------------------------------------------------------------------------|------------------------------------------------------------------------------------------------------------------------------------------------------------------------------|
| <p><b>트렌드 4.</b><br/><b>확장된 IT: AI가 기술의 범위와 역할 확대</b></p> <p>기업 조직 내에서 생성형AI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IT 부서와 인력들의 역할은 전략과 AI 통합 및 관리 등의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p> | <p><b>트렌드 5.</b><br/><b>양자 시대의 암호화 문제 해결</b></p> <p>양자 컴퓨터는 기존 암호화 방식을 위협하고 있어, 새로운 암호화 표준의 개발 및 도입과 보안 위생 (Cyber Hygiene)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적, 조직적 측면에서의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p> | <p><b>트렌드 6.</b><br/><b>중심으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b></p> <p>AI 기반 ERP는 단순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넘어 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p> |

정보처리 Information

# 거대 언어 모델에서 소형 언어 모델로



##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

많은 기업이 거대 언어 모델을 직접 구축하는 대신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 즉 초대형 인프라를 가진 글로벌 IT 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선택으로 AI 도입이 더욱 빨라졌다. 그러나 언어 모델은 무조건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 큰 규모는 때로 유연성과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부 기업의 경우 특수한 목적을 위해 구축하는 소형 언어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보안을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AI 에이전트<sup>1</sup> 간 협력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소형의 오픈소스 모델<sup>2</sup> 덕분에, '모바일 앱'의 시대는 지고 '에이전트'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 테크 트렌드

### 현재 상황



### 새로운 변화



### 앞으로의 방향

거대 언어 모델은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언어 모델을 직접 구축하기보다 거대 언어 모델을 구매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거대 언어 모델은 놀라운 수준이긴 하나, 이를 마치 기성복처럼 모든 기업에게 획일적으로 입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들은 특정 분야에 특화된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용 절감의 핵심은 다양한 AI 도구들을 도입하는 것임을 깨닫고 있다. 이러한 AI 도구 모음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거대 언어 모델 뿐 아니라, 소형 언어 모델(더 전문화되고 비용 효율적인 모델), 멀티모달 모델(텍스트 및/또는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에이전트 시스템(서로 연결된 AI 에이전트/봇의 집합체)을 포함한다. 이러한 새로운 AI 핵심 요소들은 정교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한다.

앞으로 AI는 인간의 역량을 보조하는 데서 나아가 자율적인 실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인간의 간단한 말 한마디에, 기업 조직처럼 체계화된 AI 에이전트들이 협력해서 복잡한 작업을 완수하는 미래를 상상해보라. 궁극적으로 AI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AI로 돌아가는 세상에서의 새로운 업무 방식과 데이터 처리 방식을 과감하게 받아들이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1. AI 에이전트는 사람이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를 이해하고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

2. 오픈소스 AI 모델은 구조, 코드, 학습 방식 등을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수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델

##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서의 기술 적용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계에서는 AI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업들은 다양한 부서와 제품군에 대해 AI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효율성 향상을 넘어, AI 에이전트의 잠재력과 결합된 차세대 AI 기술이 핵심 역량의 근본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신약 개발 가속화:** AI는 초기 신약 개발 단계에 혁신을 불러오고 있다. AI는 문헌 리뷰를 간소화하고,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과정을 자동화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자율적으로 작업하는 AI 에이전트 시스템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AI가 발견한 후보 물질이 신약으로 상품화되는 성공률이 80~9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전통적인 공급망은 유연성이 부족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AI 에이전트는 예측 기능과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통해 '자가 치유형 공급망'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운영이 원활해지고, 공급망의 복원력과 시장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력이 크게 향상된다.



**맞춤형 고객 경험 제공:** 오늘날 헬스케어 소비자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소비자의 니즈와 선호를 깊이 이해하고, 고객 맞춤형 소통과 경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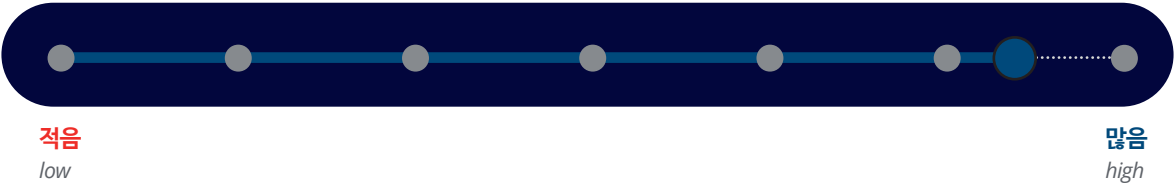
AI 에이전트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AI 모델 학습에 필수인 고품질의 데이터 자산을 유지하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비용을 관리하며, AI 개발 및 적용 전 단계에 걸쳐 가치 창출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실제 사례

AI 에이전트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이를 온전히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들은 최신 생성형AI의 강점과 기존의 결정론적(deterministic) AI 모델의 안정성을 결합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AI 에이전트를 정교하게 조율할 수 있게 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한 다국적 헬스케어 기업은 AI 기반의 도구를 활용하여 재고 최적화 프로세스와 공급망 진단을 혁신하였다. 이를 통해 재고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약 1억 9천만 달러 이상의 운전자본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약 산업에서도 AI는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AI를 통한 신약 발굴은 기존 방식에 비해 초기 임상시험 단계에서 훨씬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분산형 임상시험(decentralised clinical trials)이 동시에 확산되면서, AI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 과정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

트렌드를 적극 탐색하고 투자하는 기업 수





## 연산능력 Computation

# 하드웨어 시대 도래



### 하드웨어를 읽은 AI

AI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다. 제조업체들은 AI 모델을 PC나 엣지 디바이스에 내장하여 로컬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 인프라를 미래에 대비 가능하도록 만든다. ‘온보드 AI’(Onboard AI)<sup>3</sup>는 의료 기기나 로보틱스 같은 분야에서 사물인터넷(IoT)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프로세서는 성능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도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컴퓨팅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변화이다.

### 테크 트렌드

#### 현재 상황

첨단기술 업계는 AI를 향한 끝없는 수요에 힘입어 ‘하드웨어 르네상스’를 겪고 있다. 특히 GPU(그래픽 처리 장치, graphics-processing units)와 같은 특수 칩은 복잡한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수가 되었다. GPU는 여전히 거대 언어 모델과 콘텐츠 생성 등 고부하 작업을 처리하는 데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NPU(신경망 처리 장치, neural processing unit)라는 새로운 형태의 칩이 주목받고 있다. NPU는 뇌의 신경망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칩이다. NPU는 높은 효율성과 낮은 전력 소모로 소규모 AI 작업을 빠르게 하는 데 탁월하다. 이러한 변화로, AI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에서 벗어나 기기 내부에서 직접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AI가 내장되는 미래가 가까워지고 있다.



#### 새로운 변화

현재 인프라는 전략상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동시에 AI가 내장된 기기, 데이터 센터, 첨단 로봇 기술 등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GPU와 NPU는 이미 많은 기업에서 에너지 절감과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주었다. 가까운 미래에 기업들은 엣지 디바이스 도입과 데이터 센터 전략 등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발전하는 AI 하드웨어 산업을 살펴보면서 비용, 역량,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



#### 앞으로의 방향

앞으로 이 ‘하드웨어 혁명’은 IT라는 분야를 넘어 첨단 로봇과 진정한 지능형 기기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서로 연결된 AI 시스템이 움직이는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하드웨어가 단순히 AI를 가능하게 하던 역할에서 나아가고 있다. AI가 하드웨어를 통해 형태를 갖춘 존재로 거듭나게 되면서, 기업들은 로봇이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된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3. 온보드 AI(Onboard AI)는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하지 않고, PC, 스마트폰 등의 기기 자체에 AI 기능을 직접 탑재해서, 외부 서버 없이 스스로 판단 및 처리하는 기술



##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서의 기술 적용

생명과학 산업에서는 AI가 내장된 하드웨어의 활용을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수준이지만, 의료 기기 분야에서 AI의 잠재력은 상당하다.



**실시간 진단 도구:** NPU는 휴대용 진단 기기,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장비, 나아가 최첨단 기능을 갖춘 스마트 의수 족 등 다양한 의료 현장용 디바이스를 구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헬스케어 분야가 엣지 컴퓨팅<sup>4</sup>으로 나아가면서 보다 빠른 진단, 개인 맞춤형 치료, 의료 접근성 향상의 가능성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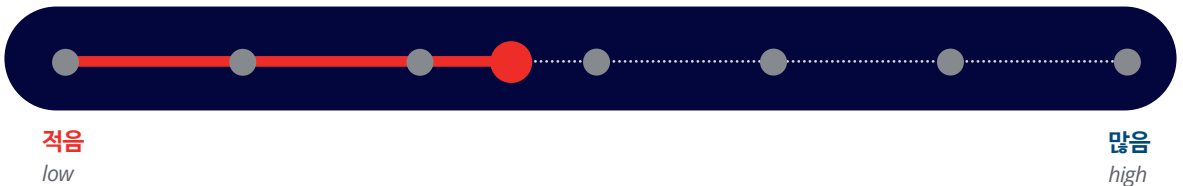
**로봇 기술의 혁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의료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적 기술이다. 앞으로 로봇이 위험한 의료 폐기물 처리부터 수술 보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환자 치료와 의학 연구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AI와 로봇 기술은 이 산업에 거대한 가능성을 안겨주지만,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준수, 윤리적 고려사항과 같은 도전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을 신중히 탐색해 가는 과정 속에서, 생명과학 산업은 AI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과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실제 사례

- ✓ 한 다국적 제약사이자 바이오테크 기업은 아마존웹서비스(AWS)를 활용하여 신약 개발 과정을 개선해, 기존에 9개월이 걸리던 신약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해당 기업은 아마존의 ECS<sup>5</sup>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해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유전체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 다양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서 510억 건이 넘는 통계적 검정을 24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었다.
- ✓ 한 수술용 로봇 전문 기업은 세계 최초의 양손/이중 기구 안과 수술 로봇을 개발 중이다. 이 기업은 수술 로봇 Luca™를 이용한 유리체 절제술의 첫 임상 연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 ✓ 한 의료 데이터 기업은 원격 환자 모니터링 분야에서 스마트 정형외과용 임플란트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이 기업의 스마트 임플란트 개발자는 관절 치환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1,000년 분량의 일일 추적 데이터를 기록했다. 이 기업이 개발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임플란트에 배터리 내장)은 수술 후 회복 상황과 임플란트 성능을 측정 및 분석한다.

## 트렌드를 적극 탐색하고 투자하는 기업 수



4.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은 데이터를 중앙 서버(클라우드)까지 보내 처리하지 않고, 데이터가 발생하는 지점, 즉 스마트폰, IoT 기기 등 사용자에게 가까운 '가장자리'(엣지, edge)에 있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

5. 아마존의 ECS(Elastic Container Service)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이 더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완전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이다(출처: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개요).

상호작용 Interaction

# 공간 컴퓨팅의 부상



## 공간 컴퓨팅이란?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은 물리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경계를 허물어 몰입감 있는 경험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가상현실 기술을 뛰어넘었다. 공간 컴퓨팅은 센서, IoT, 3D 데이터 등을 활용해 현실 세계의 운영 상황을 디지털로 복제한다. 이렇게 복제된 환경은 스크린, AR 글래스, VR 헤드셋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고도화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도출된 인사이트, 디지털 시스템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 테크 트렌드

### 현재 상황



### 새로운 변화



### 앞으로의 방향

공간 컴퓨팅은 단순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이상으로 진화했다. 이미 여러 기업이 다양한 조건이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뮬레이션 등의 활용 사례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디지털 트윈 또한 시나리오 테스트와 최적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진화하는 환경에서 차별화 요소는 의심할 여지없이 '데이터'이다. 다만, 데이터 사일로<sup>6</sup>와 상호운용성 부족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극복하고 통합된 공간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AI와 멀티모달 데이터의 발전으로 공간 데이터와 생물학적·의료 데이터 간의 간극이 줄어들고,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몇 년 안에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매끄러운 공간 컴퓨팅 경험과 상호운용성 향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필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 AI와 공간 컴퓨팅의 융합은 오늘날의 디지털 기기를 구식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며, 제스처로 움직이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이를 대체할 것이다. 이러한 상상이 완전히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업들은 지금부터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투자하고 공간 컴퓨팅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수용하며 준비할 필요가 있다.

6. 데이터 사일로(data silo)는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어 서로 공유되지 않고 단절된 상태

###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서의 기술 적용

데이터 출처와 사용자 유형이 다양하고 상호작용이 복잡한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은 공간 컴퓨팅의 이점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분야이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과 같은 기술은 복잡한 생물학적인 과정을 모형화하고, 환자 치료를 시뮬레이션해보며, 의료 기기 개발을 최적화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환자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제약 분야:** 가상으로 분자를 시각화하는 것은 신약 후보 물질 발견을 가속하며, 효율적인 설계와 가상 테스트를 가능하게 한다. 가상 환경은 환자 모집과 데이터 수집을 개선하여 임상 시험의 효율성을 높인다. 공간 컴퓨팅은 연구개발을 넘어서 제조 및 공급망 관리 영역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헬스케어 분야:** 헬스케어 기관들은 이미 환자를 가상으로 재현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진료 모델을 실험해 보고, 이러한 변화가 대기 시간이나 환자의 의료 접근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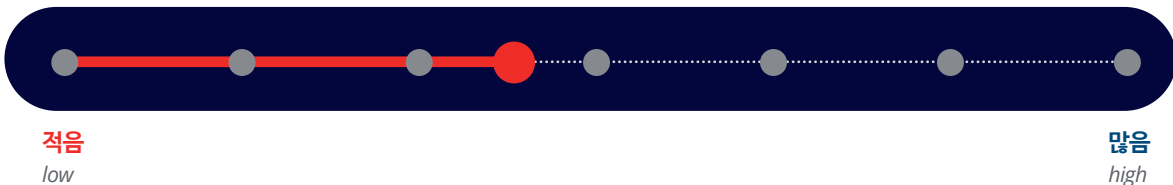


**의료 기술 분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제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상의 시제품(prototype)을 만들 수 있으며, 제품 개발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 기술 기업들은 실제 물리적 설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시뮬레이션은 제조 및 수리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기술자들이 가상현실 환경에서 작업 절차를 진행해 보으로써 정확도를 높이고 제조 및 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실제 사례

- ✔ 제약 분야에서는 한 혁신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신약 후보 물질을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이 기업은 또한 발전한 예측 모델링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도입해 수주가 걸리던 연구개발 시간을 몇 시간으로 단축하고 있다.
- ✔ 한 공공 의료기관은 시뮬레이션 모델 활용을 선도적으로 알아보고 있다. 이 기관은 의료 시스템 전반에 적용된 디지털 트윈을 통해 환자의 움직임을 시각화하고 진료 모델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

### 트렌드를 적극 탐색하고 투자하는 기업 수





## 기술과 비즈니스 Business of technology

# 확장된 IT: AI가 기술의 범위와 역할 확대

### IT 부서의 역할 변화

AI가 점점 더 도입되면서 기업 내 IT 부서는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지원 부서'에서 전략적인 차별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부서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최소한의 IT 자원만 유지하거나 외주를 통해 운영했던 기존의 'thin IT' 모델에 도전하고 있다. 동시에 AI가 개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람과 인공지능이 힘을 합쳐 이뤄내는 '성과 중심 서비스(outcome-as-a-service)'<sup>7</sup>로 IT가 나아감에 따라, IT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술 리더들은 기업이 이 변화무쌍한 시기를 헤쳐 나가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AI 전문성 등 새로운 역량을 갖춰야 할 필요가 생겼다.

### 테크 트렌드

#### 현재 상황

기업은 AI의 잠재력에 힘입어,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인프라 및 데이터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슬림해진 IT 조직이 단순한 운영 지원을 넘어, 비즈니스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 폭넓은 책임을 맡게 된다. CIO는 이제 CEO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가치를 가져오는 투자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AI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IT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실현하는 부서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기업 내 첨단기술 활성화 지원 센터(Center for Enablement)<sup>8</sup>, 비개발자 일반인 직원의 개발, AI 보편화를 통해 가능해지고 있다.



#### 새로운 변화

생성형AI가 기업의 디지털 제품 및 소프트웨어 전반에 점차 내재화됨에 따라, IT 부서는 조직 구조와 업무 방식에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중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은 자동화되고, 인간이 개입하는 코드 생성 및 검토가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에 따라 IT 팀은 보다 혁신적인 활동과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성과와 민첩성을 높일 것이다.



#### 앞으로의 방향

현재 AI 도입이 빨라지면서 IT 부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동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새로운 형태의 'lean IT'<sup>9</sup>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AI가 보편화되어야 한다. 이때 IT는 시민 개발자, 즉 전문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재사용이 가능한 코드 블록과 AI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IT가 사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IT의 역할은 구축과 유지보수에서 벗어나, 조율과 혁신으로 바뀔 것이다.

7. Outcome-as-a-Service(OaaS)란 고객이 기술이나 도구가 아니라, 원하는 '성과' 자체를 서비스 형태로 구매하는 IT 운영 모델이다. 예를 들어, 한 유통기업이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대신, 재고 예측 정확도 95% 보장이라는 성과를 조건으로 서비스 계약을 맺는 것이 OaaS에 해당한다.

8. Centres for Enablement란, 조직 내 다양한 부서가 최신 기술(AI, API, 데이터 등)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지원 허브이자 전략 플랫폼 제공 조직이다.

9. Lean IT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 가치를 창출하는 IT 운영 철학이다.

##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서의 기술 적용

이제 제약사들에게 최우선 과제는 운영 모델을 개선하는 것이다. 신약과 의료기기의 개발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구조조정이나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AI로 조직의 역량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C4E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 창출:** 기업 내 첨단기술 활성화 지원 센터(C4E, Centers for Enablement)는 기존의 기술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현업 직원들이 기술을 직접 활용하고, 탐색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IT 부서는 로우코드/노코드 플랫폼 및 생성형AI 플랫폼처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가치를 만들어낸다:

- A. 직원들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셀프 서비스 문화 확산
- B. 조직의 민첩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
- C. 차세대 플랫폼을 제품처럼 운영하는 방식 고도화
- D. 주요 플랫폼에 대한 기술 부채 감소



**AI로 인한 IT 부서의 변화:** 생성형AI는 지금까지의 IT 부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코드 작성, 테스트, 문서화는 물론, 제품 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단순히 AI를 여러 업무에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AI 환각 현상 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설계된 안전장치와 프롬프트 전략이 필요하다.

IT 부서는 개발자들이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과 모범 사례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자들을 안내하여 고품질, 신뢰성, 확장성을 갖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진화하는 IT의 역할:** 현재 AI 도입의 물결은 IT 부서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비용이 발생하는 조직에서 벗어나, 경쟁 우위를 만드는 전략적 동인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IT 리더들은 기업의 생성형AI 비즈니스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기술을 사서 쓸지 직접 만들지를 판단하며, 실제로 비즈니스 가치가 실현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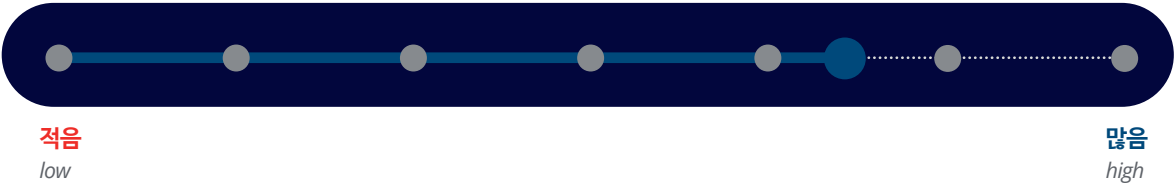
CIO와 CTO는 또한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AI 성숙도 로드맵을 그려가면서, IT 조직이 기존 역량을 빠르게 진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앞으로 IT 부서는 단순히 기술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AI로 인해 가능해진 분산적인 생태계를 통해 조직 전체가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실제 사례

- ✔ 딜로이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애주기 전체를 간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생성형AI 도구 모음인 AI 어시스트(AI Assist)를 개발했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AI 어시스턴트와 에이전트는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에 따라서는 코드 작성 소요 시간을 약 50%까지 단축하기도 했다. 이러한 혁신 플랫폼은 제품 책임자, 아키텍트 담당자, 품질 보증 담당자, 개발자 등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의 다양한 팀들에게 도움이 되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여준다.
- ✔ 한 선도적인 제약회사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이던 중앙 집중형 전문 조직, CoE(Centre of Excellence) 방식에서 비개발자 중심인 분산형 조직, C4E(Centre for Enablement)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이 전환을 통해 로우코드·노코드를 통해 비개발자인 일반인들에게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플랫폼 개발이 보편화되었다. 이 변화는 기업 IT 부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현업 사용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 민첩성을 높였으며, 플랫폼 팀이 미래 역량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도 확보하게 됐다. 또한 기존 아키텍처와 보안 기준 안에서 제품-플랫폼 팀 전반의 핵심 프로세스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이 새로운 모델은 비즈니스와 IT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했으며, 플랫폼 팀이 조직 전체와 빠르게 협업하고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트렌드를 적극 탐색하고 투자하는 기업 수



## 사이버 보안과 신뢰 Cyber & trust

# 양자 시대의 암호화 문제 해결



### 떠오르는 첨단 기술, 양자 컴퓨팅의 양면성

현재 부상하고 있는 첨단 기술인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의 독특한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의 어떤 고성능 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동시에 기존 암호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혀 없는 암호 해독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기술이 가져올 현재 및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

### 테크 트렌드

#### 현재 상황



#### 새로운 변화



#### 앞으로의 방향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현재 당면한 여타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치명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암호 해독이 가능한 '암호 관련 양자 컴퓨터(CRQC, cryptographically relevant quantum computers)'이다. 이 컴퓨터는 온라인 거래나 사용자 신원 인증 등 현재 우리의 디지털 사회를 지탱하는 기존 암호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CRQC가 정확히 언제 등장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양자컴퓨팅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자 내성 암호'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양자 내성 암호 체계로 전환하려면 적절한 계획과 행동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위험 노출 정도를 점검하며, 업그레이드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같은 기관에서 제안한 새로운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은 이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많은 주요 기관과 기술 기업들이 알고리즘과 표준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산업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신호이다.

양자 내성 암호로의 전환은 단지 위협에 대한 대응을 넘어, 기업 전체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재정비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단순히 알고리즘만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도입하며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양자 시대는 물론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보안 위협에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서의 기술 적용

CRQC는 초기에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이다. 그러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계는 이로 인한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양자 시대를 앞두고 규제 기관의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양자 보안 기반의 우수 사례를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규제가 이끄는 변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계에서 양자 내성 보안 솔루션이 광범위하게 도입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우선 규제 요건과 산업 표준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양자 내성 보안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미래를 대비한 양자 디바이스 보안:** 제품을 설계할 때 양자 내성 보안을 적용하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미래에 대비한 보안을 보장하여, 소비자로부터 굳건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심박조율기 등 제품 수명이 긴 의료기 기나, 민감 정보를 다루는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는 이런 보안이 더욱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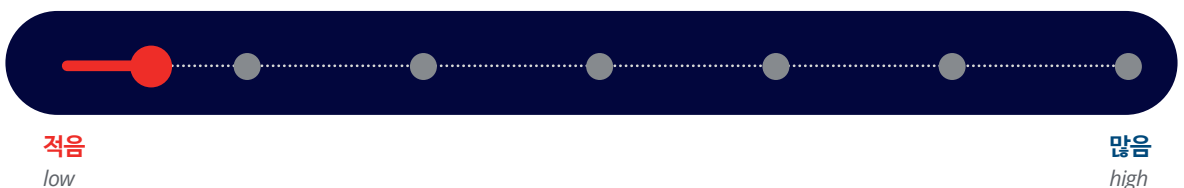
**민감 정보의 기밀성 보장:** 많은 기업에게 고도로 민감한 정보나 지적재산의 기밀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사안이다. 양자 보안 방식을 도입하면 보안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소비자 직판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한 만큼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 실제 사례

- 다양한 산업의 기업 중 무려 82%가 양자 보안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략과 이니셔티브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흐름은 애플, 구글, IBM과 같은 주요 기술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애플은 양자 보안 암호화로 iMessage 앱을 강화했고, 구글과 IBM 역시 자사 제품 전반에 새로운 암호화 표준을 도입하고 있다.
-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한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사가 수명이 길고 침습적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위해 양자 보안 의료 기기를 연구하고 있다. 향후 다른 제품군에도 양자 보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이를 기업 전반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강화할 기회로 삼아, 자사의 취약점을 평가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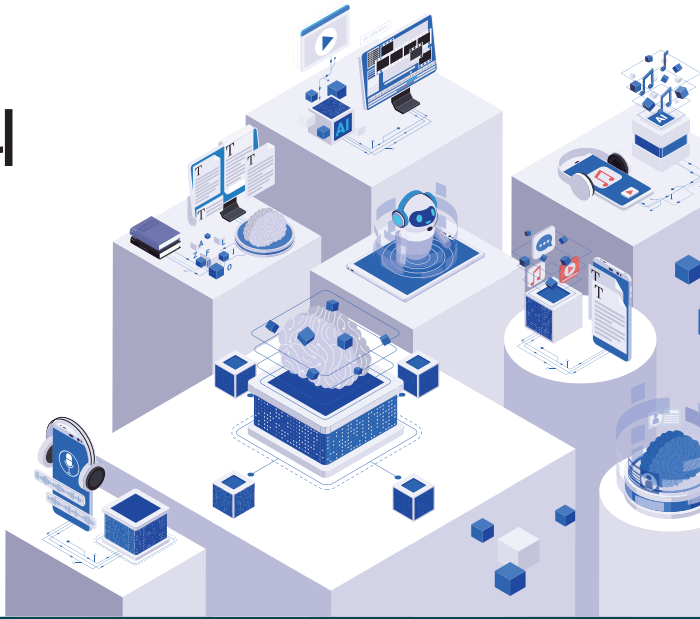
현재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는 양자 보안이 널리 채택되고 있지는 않지만, 양자 기술이 가져오는 위험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양자 보안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기술 기반을 견고히 하며, 양자 기술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시뮬레이션 등 미래 기술 발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 트렌드를 적극 탐색하고 투자하는 기업 수



## 핵심 시스템 현대화 Core modernization

# AI 중심으로 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 AI가 탑재되는 기업의 핵심 시스템

AI를 핵심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도입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의 핵심 시스템이 정적인 데이터 저장소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능적이고 동적인 허브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도록 이끌고 있다. 직관적이고 스마트한 사용자 경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ERP,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을 조율해야 한다. 이는 복잡하지만 필수적인 작업이다. AI가 기업 전반의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서, 기존의 아키텍처에 깊이 스며들어 핵심 시스템의 개념 자체를 바꿀 것이다. 이로 인해 AI 주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며, 기업들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민첩성을 갖출 것이다.

### 테크 트렌드

#### 현재 상황



#### 새로운 변화



#### 앞으로의 방향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미 AI를 활용하여 기존 핵심 시스템을 강화하고, 효율성과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ERP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운영 효율화를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ERP는 일반적으로 획일적이고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AI는 이를 바꿀 잠재력이 있다.

기존의 업무 흐름에 AI를 도입하면, 기업은 더 이상 거대한 단일 ERP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AI 오케스트레이션(AI Orchestration), 데이터 보안, 사람의 감독 역할 등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AI의 진정한 강점은 기업 전체의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점진적인 개선을 넘어 상당한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AI 모듈이 핵심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역시 AI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재구성될 것이다. 따라서 이전의 단순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달리, AI를 통한 현대화는 더욱 민첩하고 유연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IT 부서가 기업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점차 핵심 기능을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를 관리·감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기술 부채가 감소하고, 핵심 시스템이 간소화되며, 나아가 기업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혁신되는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서의 기술 적용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현재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오래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과정은 큰 기회이자 동시에 도전 과제이기도 하다. 아직 현대화 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현대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AI를 전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어느 정도 현대화를 진행한 조직은, AI를 통해 더 빠르게 변화의 속도를 높이거나 기존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의 가속화:** 많은 기업이 현재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 시스템 현대화와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AI는 오래된 시스템과 문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어, 기능 구조, 데이터 매핑, 서비스 간의 의존성, 시스템의 역할 등을 신속히 파악하게 해준다. 기존에는 며칠씩 걸리던 분석 작업이 AI를 통해 단 몇 초 만에 끝난다.



**AI로 향상되는 핵심 시스템:** AI를 포함하는 솔루션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주요 솔루션 업체들은 자동화 기능을 넘어 지능형 기능까지 제공하는 다양한 AI 활용 사례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AI 전략이 잘 갖춰져 있고, 관련 라이선스 체계가 정비된 기업은 이러한 솔루션에서 상당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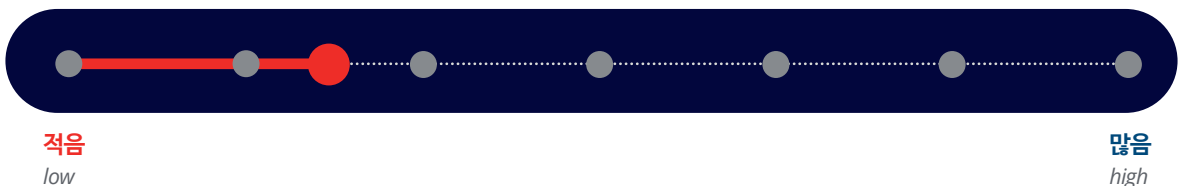


**AI에 적합한 아키텍처와 조직 설계:** AI는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가져오지만, 기업은 AI 도입 시 '구매할 것인가 vs 직접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비용과 통제력, 유연성 측면에 대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적응력이 핵심이다. 기존 시스템과 새로 등장하는 AI 도구들이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조립형 구조, 즉 '컴포저블 아키텍처'(composable architecture)를 갖춰야 한다. 이는 AI의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하면서도 민첩한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핵심 요소이다.

## 실제 사례

- ✓ 한 글로벌 화학 제조회사는 S/4HANA(독일 SAP사의 ERP 시스템) 도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딜로이트와 협력하여 xBambi라는 이름의 혁신적인 가치 포착 분석 솔루션을 도입하였다. 이 솔루션은 업무 회의에서 도출된 실시간 인사이트와 프로젝트 문서에서 추출한 유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SAP 도입 전 과정에서 비즈니스 케이스를 지능적으로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 한 글로벌 제약사는 지능형 AI 서비스 플랫폼을 도입하여 핵심 부서 간 지식 공유 체계를 간소화했다. 중앙 정보 계층과 인사, 재무 등 다양한 핵심 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는 자연어를 사용해 검색이나 질의가 가능하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 별로 언어, 국가, 근무 부서와 같은 특정한 맥락에 맞춰 정보를 수집·요약·맞춤화하여 더욱 정밀한 지식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 트렌드를 적극 탐색하고 투자하는 기업 수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내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성장의 동반자로서 제약사, 의료 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업의 전략적 과제와 혁신을 함께 해왔습니다. 약사 등 전문 자격 소지한 전문가를 국내 최다로 보유한 산업 전문팀은 다년간의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 기업이 혁신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편제성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1979

@ [jpyeon@deloitte.com](mailto:jpyeon@deloitte.com)



### 안동휘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617

@ [doahn@deloitte.com](mailto:doahn@deloitte.com)



### 박태호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2163

@ [taehpark@deloitte.com](mailto:taehpark@deloitte.com)



### 김영필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세무자문 부문

☎ 02 6676 2432

@ [youngpkim@deloitte.com](mailto:youngpkim@deloitte.com)



### 최원정 상무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컨설팅 부문

☎ 02 6676 3703

@ [wonjechoi@deloitte.com](mailto:wonjechoi@deloitte.com)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산업 전문팀

한국 딜로이트 그룹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산업 전문팀은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고객들의 전략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며, 국내외 기업의 전략수립, 회계감사, 재무자문, IT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보유한 우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찬욱 파트너

Core Technology 리더 |  
컨설팅 부문

☎ 02 6676 2732  
✉ [chanjung@deloitte.com](mailto:chanjung@deloitte.com)



### 조명수 파트너

Digital Finance &  
Operation 리더 | 컨설팅 부문

☎ 02 6676 2954  
✉ [mjo@deloitte.com](mailto:mjo@deloitte.com)



### 안상혁 파트너

디지털 부문 리더/금융산업  
총괄리더 | 컨설팅 부문

☎ 02 6676 3625  
✉ [sanghyan@deloitte.com](mailto:sanghyan@deloitte.com)



### 박지숙 파트너

금융 IT, 오피레이션 리더 |  
컨설팅 부문

☎ 02 6676 3722  
✉ [jisukpark@deloitte.com](mailto:jisukpark@deloitte.com)



### 김진숙 파트너

AI 거버넌스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4437  
✉ [jessicakim@deloitte.com](mailto:jessicakim@deloitte.com)



### 이대의 파트너

Digital CX & MMA 그룹 리더 |  
컨설팅 부문

☎ 02 6099 4892  
✉ [daeelee@deloitte.com](mailto:daeelee@deloitte.com)



### 최호계 파트너

Technology Sector 리더 | 감사 부문

☎ 02 6676 3227  
✉ [hogchoi@deloitte.com](mailto:hogchoi@deloitte.com)



### 박형곤 파트너

TME Sector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3684  
✉ [hypark@deloitte.com](mailto:hypark@deloitte.com)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 Deloitte. Insights

##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 연구원

권은진 Senior Consultant  
eukwan@deloitte.com

##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